

# 대구·경북 확진자 1000명 육박...하루새 212명 늘어 960명

## 70대 신천지교회 신도 숨져 대구 사망자 2명

## 대구시 경제부시장실 근무 직원도 확진 받아

대구·경북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했다. 지난 18일 영남권에서 첫 확진자(31번)가 나온지 8일 만이다. 26일 오전 9시 기준 대구시가 집계한 확진자 677명, 오전 8시까지 경북도가 파악한 확진자 283명을 합하면 두 지역의 확진자가 960명(질병관리본부 집계 944명), 사망자는 10명에 달한다. 대구에서는 신천지교회 신도가 처음으로 숨져 이 지역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경제부서 팀장과 경제부시장실 여직원이 감염돼 대구시의 경제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확진자가 677명으로 전날 오전 9시의 499명에서 178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3세 남성이 이날 오전 1시 숨졌다. 대구의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이 남성은 신천지교회 신도로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지난 23일 호흡곤란에 이어 24일 폐렴성 쇼크에 빠져 심각한 상태였다. 대구시 경제부시장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과 혁신성장국의 팀장, 동부소방서 동촌119안전센터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된 대구 북구 학정동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찾아 김봉옥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장(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소방공무원, 공군11전투비행단 군인 등 공무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제부시장실 직원과 경제부서

팀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되자 대구시는 시청 별관 101동과 111동 건물을 이날 하루 전면 폐쇄하고 직원 693명에게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이승호 경제부시장과 경제부서 직원 3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확진자 가운데 계명대 동산병원 직원과 방사선사, 광병원 간호사, 사회복지시설 직원, 학원 강사 3명도 포함됐다. 이날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첫 완치자가 나왔다. 37번째 확진자인 47세 남성으로 지난 18일 경북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24~25일 두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완치 판정이 내려졌다. 경북에서는 하루새 34명이 추가

돼 확진자가 283명으로 늘어났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 1명이 추가돼 112명,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 16명이 추가돼 68명으로 증가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참가자 1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29명으로 늘었다. 중증장애인시설인 칠곡 밀알사랑의집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52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 경북지역 확진자 283명 중 지금까지 8명이 숨졌다.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중 7명은 청도 대남병원에서, 1명은 경주에서 발생했다. 경북도는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신천지교회 신도 403명의 명단을 받아 시·군별로 전수조사를 받고 있다. 뉴스1

## “대구로 내려가겠다”...코로나19 의료영웅 205명

의사 11명 · 간호사 100명 · 간호조무사 32명 등 자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25일 오후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진이 근무를 마치고 무거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대구에서 환자 진단검사와 치료, 행정 지원 등을 자청한 의료인과 병원 직원이 총 20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을 임시휴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대구 의료봉사에 자원한 의료인과 병원 직원은 의사 11명과 간호사 100명, 간호조무사 32명, 임상병리사 32명, 행정지원 40명 등 총 205명이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직도 더 많은 의료인이 필요하다”며 “뜻있는 분들의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코로나19 마이크로 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44-202-3247로 연락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1총괄 조정관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의료활동에 참여하는 의료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예우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경영한 의료인은 운영을 못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책정)할 예정”이라며 “병원이나 어떤 기관에 소속돼 있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보수 지급에 대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먼저 한 뒤에 별도 수당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1총괄 조정관은 “경제적으로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목

표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구) 현지에서 활동을 마친 뒤 적절한 포상이나 예우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인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은 코로나19 여파로 대구시의 의료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구시는 지난 25일 대구시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병상 1000개·의료인 300명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대응 상황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현재 확보된 병상으로는 25일 오전까지 발생한 확진자 입원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진자 급증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1000개 병상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요청한 병원은 정부 소유인 국군대구병원과 마산직접치병원 등이 다. 권 시장은 또 “대구에 파견된 군 의무인력 101명으로는 2개 거점병원을 지원하기 부족하고 병상이 추가될 경우 환자를 돌볼 인력도 절실하다”며 “감염병 전문의를 포함해 의사와 간호사 등 최소한 300명의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평생 처음 ‘온라인 강의’ 준비하는 교수들

성균관대·중앙대 등 개강 후 2주 동안 원격 강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각 대학들은 학생들의 등교 시기를 늦추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미 개강을 연기한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해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은 개강 후에도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앞서 성균관대는 지난 11일 개강 1주 연기와 함께 2020학년도 1학기 1, 2주차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개강을 1주 연기하고, 온라인 수업을 2주 진행해 학생들이 3월 23일부터 등교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온라인 강의를 고심했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모든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성균관대는 앞서 약 20년 가까이 사용한 i-Campus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도 있으나, 일부 강의만 사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약 4000 강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 처지다. 학교 관계자는 “처음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도 있다. 평소 강의와 다르게 녹화해서 플랫폼에 업로드 하는 등 번거로운 부분이 많은데 95% 이상의 교수

님들이 협조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대와 건국대는 지난 25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개강 후 2주 동안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개강을 2주 연기한 두 학교는 오는 3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 강의를 실시, 학생들의 접촉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중앙대 관계자는 “정부에서 위기경보를 ‘심각’ 상태로 올렸고, 확진자도 1000명이 넘었다. 학생들이 3월 16일에 학교로 오게 된다면 감염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 강의를 추이를 더 지켜볼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나 교수님들 모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강의는 해야 하지 않나. 학교 내부적으로 팀을 만들어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촬영하고, 편집할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할지 등에 대해 구상 중이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 결정을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가장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녔던 경희대학교(3839명)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경희대 관계자는 “만일 사태에 대비, 준비는 하고 있다”며 “모든 강의에 대해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니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대비했다.

## “코로나19 차단 범시민운동” 전주 소독약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범시민 소독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소독약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소독장비를 공짜로 빌려준다. 전주시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보다 더 확실한 방역을 위해 범시민 소독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주시는 24일 이번 주를 소독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소독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마다 범시민 소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소독주간은 26~29일이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소독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킨 것은 전주가 처음이다.



중국인 유학생 본격 입학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가 전세버스를 투입,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수송하고 있다. 수송 작업에는 전주시가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 ‘꽃? 안 사고 안 봅니다’...코로나19에 제주 꽃없는 ‘차가운 봄’

코로나19의 끝없는 지역사회 확산으로 ‘꽃’ 없는 차가운 봄이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평년보다 이르게 봄꽃이 필 것으로 예측되며 기대를 모았던 제주의 봄은 이미 얼어붙었다.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소비심리도 얼얼해 위축되며 화훼업계 불황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순식간에 지역사회로 퍼져 나가며 제주의 봄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요 꽃축제들이 연

달아 취소됐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한 달여간 축제 취소 논의는 물밑에 가라앉아 있었지만 최근 두 명의 제주지역 확진자가 발생하며 결국 줄줄이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 춘천 중국인 유학생 대학가 원룸 격리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가 중국인 유학생을 생활관에 격리 입소시키기로 한 가운데 이들 외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통제에 벗어날 우려가 커 대학가 안팎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26일 춘천시와 대학 측에 따르면 관내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은 총 367명으로 격리 기숙사 입소 152명, 대학가 원룸 96명, 미응답(입국취소) 119명 등이다. 강원대학교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격리 기숙사 입소 중국인 유학생 57명이 입국해 일체 외부 출입이 통제된 상태로 격리에 들어갔다. 나머지 인근 대학가 원룸에 거주하는 유학생 16명은 3월2일전까지 모두 입국 예정이다. 한림대학교는 28일부터 29일까지 총 175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입국해 99명은 격리 기숙사 입소, 55명은 대학가 원룸으로 자가격리

되고 22명은 입국 취소했다. 이들 모두 외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에서부터 대학간이 검역시설까지 춘천시보건소가 지원하는 버스를 통해 이송된다. 이송 후에는 자기문진표, 격리동서서, 발열체크, 호흡기증상 등 검진을 받고 감염 예방물품과 매일 2회 발열체크를 비롯한 건강상태를 2주간 지속적으로 점검받게 된다. 만약 유증상자 발생 시 검체를 채취해 강원대학교병원 또는 한림대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된다. 하지만 격리 기숙사 입소자들은 출입구가 하나고 외부통제가 쉽지 않지만 원룸에서 격리되는 유학생들에 대한 통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근 부동산중개업, 음식점 등 업주들은 휴식나 통제에 벗어날 것에 우려를 하고 있다.